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5호 [투계 제2671호]

주체 110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음력 10월 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 전변의 새 역사창조를 힘있게 추동하는 음악정치

지난 10년은 노래로 력동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뜻과 의지를 담아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세차게 울리고 그속에서 창조와 전변의 가슴벅찬 력사가 수놓아져온 감동깊은 나날이었다.



### 시대의 명곡들로 인민을 기적과 위훈창조로

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  
평범하게 흘러온 10년이  
아니었다.

노래 《발걸음》과 함께 인민들에 더 친근하게 다가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에 2월의 정기를 뿌려주시며 전변의 첫해를 음악의 장중한 포성으로 여시였다.

주체101(2012)년 1월 신년 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가 진행되고 음악무용 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에 이어 광명성절에는 대공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의 무대가 펼쳐져 온 나라를 격정의 도가니로 뒤흔어내주었다.

온 나라를 산악같이 일떠세우며 펼쳐지는 공연무대들을 보면서 누구나 또 한분의 절세위인께서 펼치시는 음악정치로 더욱 통성할 조국의 앞날을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며 즐겨 부르시는 노래들이 인민모두의 심장을 울어잡는것은 바로 그 한편편이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민중의 음악적분출이 기쁨문이다.

제2의 예곡가로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우고있는 노래 《조국찬가》도 그렇게 태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노래 《인민공화국찬가》를 놓고 가사의 구절구절, 표현 하나하나를 인민의 생활, 인민들과 친숙한 어휘를 그대로 담아 새롭게 고쳐 완성시켜 주신 노래가 바로 《조국찬가》이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것은 그 주옥같은 표현들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향과 열정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승마바람을 일으키며, 마식령스키장에서 문명의 눈발기를 날리며,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수심계의 수조들이 야외와 실내에 짝 들어차있는 문수물놀이장에서 모든것이 활활하고 눈이 부시어 사람들이 터진 노래는 《이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지리》, 바로 《조국찬가》 이 노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이 노래속에 이 나라 강산은 10년세월 10년도 넘게 변하였다.

노래와 더불어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으로 심장을 뚫어내고 노래로 인민에 대한 전설같은 사랑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해 새해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는 맹세로 다시금 세상을 격동시키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해빛같은 집,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행복넘친 집인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리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산인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어갈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관원을 바라보시며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시인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좋은 시구절이 떠오를것이며 창작가들은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명곡을 내놓게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고 쏟아지는 물고기목포를 보시고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노래 《바다 만풍가》를 흥겹게 부르신 원수님.

그이의 하늘같은 사랑의 세계에 떠날때 노래 《세상에 부럼없으라》는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가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라는 노래의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 나라를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주의의 크나큰 락관으로 꾸리자는것이 우리 당의 리상이고 투쟁목표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면 선침으로 어려오는것은 파업군의 파수연소가 전하는 잊을수 없는 이야기이다.

연구소복도에 인공지구위성이 그려져있을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왜 저 그림을 그렸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 조국의 국력의 상징이기때문에 그려놓았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저 그림대신 한 그루에 사과 300알 달린 나무를 그려놓았으면 더 좋을것같다고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황금같은 능금알을 마음껏 따보며 만복을 누리려는 인민의 웃음을 국력의 진자 상징으로 여기시는 원수님이시기에 우리의 3대 전략사상은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라는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가슴뜨거운 정의로 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키시였다.

바로 이런 위인을 어머니로 모시였기에 인민은 《우리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리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라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27hp의 목선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에 생겨났고 최우선, 절대사라는 원칙과 열사복무의 정신이 타올라 인민들의 심금을 쿵쿵 울려주었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하는 사연은 더 뜨거웠었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로비서대회에서 원수님께서 이 노래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

고 환희의 노래를 터치며 그이의 령도만을 총정도로 받들어 위대한 전변의 력사를 펼쳐가고있는것이다.

히 한길을 가리라》를 들으며 당 제7차대회를 할것을 결심하고 력사적인 당대회장에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함몰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실사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십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총일할것이라고 굳은 맹약을 다지시였다.

그이의 그 절절한 음성을 들으며 인민들은 누구나 그이를 우러러 영원히 한길을 함께 갈 불타는 일념을 다지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노래 《당이어 그대 있기에》가 나왔을 때에는 정말 좋은 노래라고, 이 노래에는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더 좋은 매일, 잘살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는 우리 인민들의 굳은 신념이 반영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 큰 영광으로 떠안으시였다.

비바람과 찬바람속에서 자식들을 더 품에 껴안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이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찾아 큰물이 제지도 않은 대청리의 감랑길을 제일먼저 헤쳐주시고 립시방들로 세운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로도 주저없이 철차를 달리시였다.

그 날에 원수님께서 좋은 노래라고 거듭 만족해하신 《근위부대자랑가》와 같은 멋쟁이군가, 《승리는 대를 이어》와 같은 승리자의 쾌감을 한껏 맛보게 하는 명곡들이 태어났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주체식 절대병기들이 연료를 달며 날아오른것이 아니라 노래로 혁명신념을 백배하시는 원수님의 불굴의 정신력, 위대한 헌신에 받들려 솟구쳐올랐고 국가행위력 향상의 력사적대업은 성취되었다고 격정의 마음들을 터치였다.

노래와 더불어 새겨진 위민헌신의 령정을 돌이켜볼수록 감격없는 들을수 없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원수님께서 노래 《영원리데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다고 하시며 세로비서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에 대해 자상히 가르쳐주시였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를 1월부터 3월까지 한자두자 쓰이며 세로비서들에게 보내주시고 상처받은 가슴들에 재생의 빛을 안겨준 녀성당원군의 소행이 그토록 소중한것이며 조국당비서들지라 정갈게 불러주시며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비단 사랑만 부여주시것이 아니라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시 위대한 어머니이시였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절대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제정결의》라는것을 조작하고 압박소동을 벌리던 준엄한 시기에 공훈국가



춤이 굽이 위민헌신의 그 자욱을 더듬어보노라면 귀전에 울려오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당을 노래하노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일 군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어 인민들속에서 《당을 노래하노라》이 노래가 언제나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을 자기들의 삶을 빛내주는 세상에 돌도 없는 품이 당의 붉은 기쁨을 어머니의 웃자락처럼 부둥켜안고 목매여 노래하는 그 인민들 품에 꼭 안으시고 《당을 노래하노라》 이 노래와 더불어 력사의 생년길을 헤쳐오신

원수님께서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들으며 당 제7차대회를 할것을 결심하고 력사적인 당대회장에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함몰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실사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십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총일할것이라고 굳은 맹약을 다지시였다.

그이의 그 절절한 음성을 들으며 인민들은 누구나 그이를 우러러 영원히 한길을 함께 갈 불타는 일념을 다지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노래 《당이어 그대 있기에》가 나왔을 때에는 정말 좋은 노래라고, 이 노래에는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더 좋은 매일, 잘살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는 우리 인민들의 굳은 신념이 반영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 큰 영광으로 떠안으시였다.

비바람과 찬바람속에서 자식들을 더 품에 껴안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이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찾아 큰물이 제지도 않은 대청리의 감랑길을 제일먼저 헤쳐주시고 립시방들로 세운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로도 주저없이 철차를 달리시였다.

그 날에 원수님께서 좋은 노래라고 거듭 만족해하신 《근위부대자랑가》와 같은 멋쟁이군가, 《승리는 대를 이어》와 같은 승리자의 쾌감을 한껏 맛보게 하는 명곡들이 태어났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주체식 절대병기들이 연료를 달며 날아오른것이 아니라 노래로 혁명신념을 백배하시는 원수님의 불굴의 정신력, 위대한 헌신에 받들려 솟구쳐올랐고 국가행위력 향상의 력사적대업은 성취되었다고 격정의 마음들을 터치였다.

노래와 더불어 새겨진 위민헌신의 령정을 돌이켜볼수록 감격없는 들을수 없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원수님께서 노래 《영원리데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다고 하시며 세로비서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에 대해 자상히 가르쳐주시였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를 1월부터 3월까지 한자두자 쓰이며 세로비서들에게 보내주시고 상처받은 가슴들에 재생의 빛을 안겨준 녀성당원군의 소행이 그토록 소중한것이며 조국당비서들지라 정갈게 불러주시며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비단 사랑만 부여주시것이 아니라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시 위대한 어머니이시였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절대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제정결의》라는것을 조작하고 압박소동을 벌리던 준엄한 시기에 공훈국가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며 즐겨 부르시는 노래, 그것은 단순히 오선지우의 선율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 조국에 대한 뜨거운 헌신의 울림인것이다.

강국은 결코 령도나 인구에 비례하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여 공화국은 강국이고 공화국의 인민은 존엄높은 강국의 인민인것이다.

《그 정을 따르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와 같은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송가가 련이어 창작되고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불멸한 국기, 그 국기에 찬탄하세겨진 별을 승리로 빛발치게 하겠다는 《우리의 국기》와 같은 명곡이 태어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참다운 령수를 모신 인민만이 이뤄낼수 있는 긍지이고 소리가 높고 구구할수 있는 자부심인것이다.

지금 세계는 노래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악정치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들을 높이고있다.

《김정은시대 음악정치 세계를 뒤흔치게 한다》, 《세상에 젊음을 주는 조선의 음악정치》, 《황홀한 공연들을 보고 명곡들을 들으면 조선의 다음날은 또 어떤 황홀한 모습일가 하는 기대감이 크다》, 《인민사랑의 노래가 가득한 나라 조선》 등의 찬란들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서 광범히 울려나오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사랑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고 인민은 수령신뢰의 노래를 목메어 터치는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이 나라의 더욱 밝은 매일이 비껴있는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노래들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한없는 헌신과 사랑의 열도를 느끼고있으며 친근하신 그이께서 계시는 미려한 창창하라는 긍지와 확신을 노래에 담아 부르며 그이의 뜻과 믿음에 받들어 백두산하늘아래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접하고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진행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0월 28일 평양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

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실천적과업들을 도의하였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중첩되는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며 우리 국가를 부흥발전시키고 전면인민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으며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과 함께 시정연설과과업관철에 힘있게

펼쳐나설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제시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주요과업들과 실천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진행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0월 29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시정방침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다그치는데서 공민적의무를 다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제시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얼마전 백두산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삼지연시에 또다시 천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일떠서고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져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였다.

백두산기슭의 자연기복과 조화를 이루며 꾸러진 단층, 소층, 다층살림집들이 삼지연시의 10개 동, 리에 새로 일떠섬으로써 백두대지는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삼지연시를 지방산간도시의 전형,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리고 이것을 모든 지방군들에 일반화하여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일찌기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평양시와 함께 도소제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귀중한 본보기들을 하나 하나 마련하시며 지방건설의



삼지연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주제102(2013)년 11월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로력문제로부터 설비와 자재 등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깊이

이 관심하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주제106(2017)년 12월 삼지연군(당시)을 또다시 찾으신 그이께서는 삼지연군 꾸리기를 완전히 새롭고 통

이 크게 전개하여 현대문명이 융성된 산간지대의 본보기도시로 전변시키는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지도는 삼지연시꾸리기에 있어 일대변혁을 일으키고 지방건설의 표준, 본보기를 창조하게 한 중요계기로 되었다.

그이께서는 삼지연시를 지방산간도시의 표준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형성안만도 무려 수천여건이나 보아주시고 건설이 한창 진행될 때에는 한해에도 여러 차례나 현지에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렇듯 그이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속에 삼지연시가 훌륭한 산간문화도시로 전변될 수 있었으며 중령남새온실농장과 함경북도양묘장, 대청리

와 강북리, 검덕지구에 농촌마을의 본보기, 산악협곡도시가 일떠서 지방건설에서 내세워야 할 기준, 목표가 명확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방건설의 본보기, 표준을 일떠세우는 사업과 함께 나라의 모든 시, 군들에서 건설의 일대 전환기가 펼쳐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힘을 넣어 농촌특유의 문화발전, 우리 식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와 역사적

인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해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9월말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지방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선시키는데 대한 중대계획과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공화국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자기 도와 지역, 마을을 사회주의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대건설전투계획들이 세워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커다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전에 평원군 남동리에 7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번듯하게 일떠서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졌으며 순천시에서는 능력이 큰 염소목장이 새로 건설되고 황해북도에서는 본보기학교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시, 군들에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건설사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수도과 지방도시주민들뿐 아니라 농촌주민들까지도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훌륭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과 숭고한 리상, 그이의 령도를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려는 공화국인민들의 불같은 애국열의에 받들려 앞으로 공화국의 모든 지방들은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행복의 별천지로 변모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중령 남새 온실농장과 양묘장



평안북도소년단야영소

평범하고 레사로운 말씀속에 또 깊은 뜻을 담으시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특유한 친필의 하나였다.

주제85(1996)년 1월 2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 대표자회에 참가하려고 조국에

은 제일조선청년동맹 축하단 성원들을 위해 뜻깊은 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시었다.

그런데 일부 제일조선청년들은 왜지인지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어려워하는 기색을 지우지 못하고있었다.

아버이의 섬세한 눈길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장군님께서는 몸을 뒤로 제끼시며 소탈하게 말씀하시었다.

조청원동무들이 조선인민

군청주단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거기에 위압되어 그러는지 긴장된감이 있는 데 마음을 놓고 식사도 많이 하고 술도 들어가 하겠구나. ...

오늘 연회는 주인들이 손님들의 포위속에서 진행되고

### 동로군중속에 들어가라

있습니다. 주인보다 손님이 많다면 술과 음식을 손님들에게 권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앞으로 총련이국사업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다지는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장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장내의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 은 제일조선청년들의 기분을

순식간에 흥겹게 일변시켜 놓았다. 그들은 부자연스럽던 몸가짐을 풀고 자기 집 식탁에 마주앉은듯한 기분이 되어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모습을 유정 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이때 장군님의 나직한 음성이 뒤이어 울렸다. 그렇게 하는것도 다 동로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요. ...

순간 총련일군들은 이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가슴을 치며 와닿는감을 느꼈다. 비록 연회도중에 스쳐 지나가듯이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깊은 뜻이 의미

심장하게, 생동하게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일찌기 총련일군들이 재일동포들속에 들어가 사업하고 생활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오늘 한마디의 레사로운 말씀을 통하여 한평생 지위지지 않게 심장에 새겨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이시었다.

본사기자

## ◎ 통일조국의 앞날을 그리시며 ◎

주제82(1993)년 3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제미교포들을 친히 만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열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스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주제74(1985)년 5월 어느날이었다. 친선의 정을 안고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의 한 국가수반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담화석상에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통일문제에 대한 소감과 그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숙망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나

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열로 인한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명철한 해답을 주시었다.

민족의 분열로 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가슴아파하시며 그것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불분분류의 로고와 실행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통일관에 외국의 국가수반은 크게 탄복하였다. 본사기자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관한 사상제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은 빛나는 예지와 사회주의에 대한 철석의 신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국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이다.

그이께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공화국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자기 발전행로에서 가장 존엄높고 궁지없는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 놓으시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서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주제101(2012)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그 이듬해의 5월에도 자신의 드림없는 신념을 담아 자신께서는 늘 수령님의 장군님의 넘칠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신년사에서 그이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면서 당 제7차대회이후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은 맞대드는 모든 장애를 저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는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고 긍지높이 총화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관한 탁월한 사상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결사적인 투쟁으로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오늘날의 시대적특징을 과학적으로 집약한 사상이라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의 가중되는 침략위협을 종식시키고 공화국을 존엄높은 나라로 빛내이시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앞장에서 사신의 고비들을 헤쳐주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오 자주적인 대외 활동으로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을 비상히 높여주시었다.

다양한 생활의 시공간을 력사의 갈피에 고착시키며 인간의 감정정서에 깊이 흘러든 사진의 력사가 흘러 어느덧 백수십년.



## 《혼연일체의 현상, 그곳의 진실》(3)

무릇 사진은 력사의 기록이고 그 시대 인민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다양한 생활의 시공간을 력사의 갈피에 고착시키며 인간의 감정정서에 깊이 흘러든 사진의 력사가 흘러 어느덧 백수십년.

하지만 그 무수한 사진의 갈피갈피를 훑어보아도 공화국에서처럼 령도자와 인민이 그리도 스스럼없이 어울려 찍는 사진은 찾을수 없다. 또 그렇게 남긴 기념사진을 가보처럼 귀중히 여기는 인민도 없다.

돌이켜보면 수령과 인민의 현연의 정을 맺고 사는 이 나라의 참모습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수많은 기념사진들이 세상에 알려져 만사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런 기념사진들가운데는 이런 사진도 있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선 사람의 수는 4만명. 그들이 선 길이는 무려 2700m.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군인들이 함께 남긴 사진이다. 과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기념사진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나.

주제104(2015)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자연의 대재앙으로 큰불피해를 입었던 라선땅을 2000여리의 하늘길, 바다길, 령길 을 달려서 두번째로 찾으시었다.

피해를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일떠선 백학동(당시)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터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기념사진을 찍고 가자고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무려 1시간 30분동안 수만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시었다.

나라의 고고작은 모든 일을 다 돌보셔야 할 경애하는 그에게 있어서 일본일초는 얼마나 귀중하시나. 더구나 그

때로 말하면 당장형 70톤 경축행사가 눈앞에 막두한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군인건설자들을 만나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실 계획을 미리 하고 나오신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수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자기들의 전투현장을 찾아오신것만도 너무나 고맙고 만만치않은데다가 그이를 비울수 있다는것만으로도 비길데 없는 영광으로 여기는 군인들이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차마 그대로 떠나실수 없으시었다. 자신께서 제일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시는 인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격전에 피와 땀을 바친 군인건설자들에게 대한 대결한 마음이 좀처럼 달음을 뿜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전사들과 그냥 헤어진다면 한생토록 가슴에 맺혀 내려갈것같지 않은 뜨거운 인정이 그의 심중에

존엄과 위력을 떨친 과학자들, 황금해역사의 창조자들 그리고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조선로동당기발이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하여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였다. 그 화폭속에 새겨진 령도자와 인민의 모습은 뜨거운 현연의 정으로 어이언 한가정의 모습이었다.

인민들을 쉬임없이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과 더불어 온 나라가 그대로 기념촬영장무대가 되었고 이 나라의 수많은 병사들과 로병들, 아이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과학자들과 청년들이 따뜻한 그의 품에 안겨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령 그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수도 그 누가 흉내낼수도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현연의 세계, 가를메야 가를수 없는 친철함의 정을 담고있는 가슴겨운 화폭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삼천리강토의 천만산악을 품에 안고 오랜 세월 역사의 온갖 풍파를 다 맛보고 보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

푸르른 천지의 맑은 물줄기를 생명수로 하여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 이루어졌고 반만년을 헤아리는 민족사가 여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흘러왔다.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통일의 새 아침도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밝아 오리라하는 자명한 리치이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 겨레를 자주통일로 부르는 백두산악의 웨칭소리가 삼천리강토를 세차게 울린다.



# 백두산은 삼천리를 굽어본다

## 자주의 넘과 기상 넘치는 조종의 산

지금 이 땅 그 어디나 단풍은 일새들이 마가울의 풍치를 돌고있다. 하나 여기 백두산에 오르면 하얀 장설을 띤 천리수해를 안아볼수 있고 하늘땅을 휩쓸며 돌아치는 눈보라에 태고연한 천고의 밀림이 폭풍쳐 설레이는 장쾌한 모습을 볼수 있다.

이것을 어찌 하나의 자연현상으로만 보겠는가. 부연한다면 백두산은 자주의 넘과 기상이 차고넘쳐겨레가 더욱더 숭상하는 성산이다.

백두산의 줄기줄기, 봉우리와 골짜기마다에 차넘치는 자주의 넘과 기상이 눈부러가 저리도록 어리여온다.

자주! 아름다운 시어로가 아니라 근엄한 심정으로 이 부름 새겨본다. 그러면 좌-좌 울부짖는 천고밀림의 눈보라소리가 백두의 자주기상으로 조국통일도 이룩해야 한다고 웨치는 것만 같다.

백두의 자주기상으로 숨쉬며 살아가 민족이 일구월심바라는 통일이 온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란, 민족적정신이 있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란 백두의 자주기상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살아야 한다.

이 나라의 명산들을 부감하듯 한갓 산령의 경계나 그 아름다움에 심취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두산정에 새겨진 숭고한 민족자주의 정신과 넘을 새기기 위해 백두산에 올라야 백두산악의 진자미를 알수 있다.

귀부리를 스치며 땀-땀을 흘리는 백두의 눈보라소리를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태고적부터 위임없이 흘러온 민족의 력사가 그 눈보라소리에 실려 가슴에 마쳐온다.

1920년대 우리 나라의 한 력사가는 천하의 명산인 백두산을 편담하고 《단군도 백두산에서 나왔다》 동명도 백두산에서 나왔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인물이 백두산에서 난것은 큰 사변이었다. 그러나 이 조종의 백두산에서 앞으로 세계를 평정할 특출한 영인이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놓고보면 단군이나 동명이 백두산에서 난

것은 《구우일모》에 불과하다.》라는 글을 남겼다.

우리 민족이 백두산을 얼마나 숭상했는가 하는 것은 장군봉밀의 천지기승바위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태백 대백수 풍신비각》이라는 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처럼 백두산은 예로부터 조선민족의 정신적지주였다. 그래서 땅국의 비운이 질어가던 시기에 우리 겨레는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위인이 출현하기를 예라게 기원한것 아니던가.

세기를 두고 이어오며 겨레의 마음속에 신령의 산으로 자리잡았던 백두산은 마침내 자기의 진정한 주인을 맞이하였으니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두산 줄기줄기마다에 피어낸 혈전의 자욱을 새기시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은 조선의 상징인 동시에 광복거사의 상징으로 되었다》고 교시하신것처럼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봄이 울렸다. 정령 백두산은 노예로 살지 않고 자주와 존엄에 살려는

겨레의 념원과 지향이 응축되어있는 민족의 성산이다. 무장으로 강도 일제에 맞서싸워 나라의 독립을 끝끝내 이룩한 영웅적인 투쟁정신이 질계숨배여있는 혁명의 성산이다. 우리 겨레가 통일을 하자면 바로 이런 백두산의 자주기상으로 해야 한다.

통일은 다름아닌 자주이기 때문이다. 외세가 강요해온 민족분열을 민족주체적인 힘과 노력으로 끝장내는 자주위업이 통일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할수 없다. 통일처방도 안겨줄수 없다.

민족내부에는 아직도 사대와 교조에 물젖어 다른 나라의 통일에 대해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식의 통일의 길 이 있다. 하기에 북과 남은 이미 오래전인 지난 세기 70년대에 통일을 자주적으로 할데 대한 원칙에 합의하였고 그후에도 북과 남의 통일문제협에서 자주문제를 빼놓은적이 없었다.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길에서 백두산은 언제나 우리 겨레에게 자주의 역센 신념을 안겨주는 성

스러운 피부리로 빛을 뿌려왔다.

하늘을 찌를듯 솟아 빛나는 백두런봉을 바라보노라면 설한공 휘몰아치는 산중에서 풀뿌리를 씹고 가랑이를 이불삼아 족잡을 하며 민족해방의 길을 고향없이 걸은 항일의 선렬들의 불굴의 모습이 금시 보이는것만 같다.

백철불굴의 그 모습은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기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안아와야 한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해준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누구나 백두산에 오르면 이구동성으로 터치고터 친것 아니겠는가. 《백두산정에 서니 삼천리 지맥이 한눈에 보인다. 통일이 보인다.》

《아 백두산아!》 《우리는 하나다!》 ...

남에서 살건 바다멀리 해외에서 살건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찢릿하게 느끼는 진실한 감정이다.

그래서인가. 강토의 허리에 아직 분계선이 가로놓여있어도 북남의 겨레를 민족의식으로 일깨워주어 하나로 합치게 해주는 백두산의 천지물이고 백두산의 천만산악이다.

하기에 누구나 백두산에 오르면 민족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산중에 차넘치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심신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통일운동의 길에 이를을 남긴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인사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면 심심은 넘치고 새 힘이 솟아올라. 통일에 사는 사람들, 통일대업에 떨쳐나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굴함없는 의지를 북돋아 준다.

언제 가보아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에 새로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게 해주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

여기에 오르면 제일 인상깊은것이 살을 에이는듯한 백두의 칼바람이다.

백두의 그 칼바람을 한몸에 맞으면 누구나 눈앞에 떠올리는 태양의 존안이 있다.

통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삼천리강토가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

그이의 강의하고 역센 기상에서 우리 겨레는 통일강국의 래일을 보았다. 민족번영의 밝은 앞날을 보았다.

백두의 넘과 기상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그이, 온 겨레가 우리러따르는 경애하는 원수님!

언제인가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하시던 말씀이 울려오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낼 일도 없다. ...

정령 그렇다. 날이 갈수록 약탈해지는 반통일세력들의 책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엔 의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있지만 억척만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 나아가 기어이 승리를 떨치는 백두의 공격정신을 지니신 회색의 위인께서 겨레의 통일위업을 이끄시기에 승리는 확신했다.

백두산정에 찍으시던 그 힘찬 걸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통일의 발걸음을 선두에서 성큼성큼 내딛으신다.

그이의 힘찬 발걸음을 떠날때 자주의 성산, 승리의 성산 백두산은 헤친다! 그가 누구이든 통일대국의 길을 끝까지 가자면 백두산에 오르라!

힘찬한 통일령에서 곤난이 막아지고 힘이 부칠 때면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아보라. 그리고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라!

그러면 심심은 넘치고 새 힘이 솟아올라리라. 본사기자 유금주

##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밝혀주고 있는 통일위업실현의 고귀한 지침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갈 당사자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데서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줄수 없다. 외세는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오늘도 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외세와 공모하여 동족을 모해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수치스러운 매국배주정위이다.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합치면 못낼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사상과 계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

일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일치단결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아침을 기어안아오야말것이다. 본사기자

## 통일을 불러 공화국의 첫 교육상 (3)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남운선생에게 들려주신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실 때에는 선생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주시고 준엄한 천하의 나날에는 민족의 귀중한 재보를 구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에도 참가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설날에는 선생을 최고사령부로부터서 새해에 백남운선생의 건강을 바란다고 하시며 은정깊은 축복잔까지 부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참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백남운선생을 자신의 가까이에 두시고 힘이 진할새라, 신심이 흔들릴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며 그 어떤 무거운 책임도 감당해

수 있는 능력있는 일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무척 마음쓰시었다.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갔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교육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백남운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의 각별한 사랑속에서 전후에 과학원인(당시) 원장으로,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상부위원으로 사업하였다. 특히 당시 조국통일사업을 전담한 중요한 기관의 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정책과 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렇게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 서 백남운선생은 사소한 우여곡절도 모르고 애국의 한길만을 꿋꿋이 걸어왔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백남운선생의 환갑날이 가까와올 때에는 친히 고급제단사를 보내시어 새옷을 지어주도록 하시고 당일날에는 중구역에 자리잡고있던 그의 집을 뚫고 찾아주시어 우리 공화국의 첫 교육상이었다고 다정히 불러주시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손수 그의 추배잔까지 들려주시면서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부디 건강하라고, 선생은 조국통일을 위하

여 건강해야 한다고 따듯이 이르시며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잘 돌볼데 대한 《특별분공》도 주시었다.

그러시기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집무실이 돌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당 부분의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고 오늘 백남운선생의 집에 가보았는데 집이 불편하겠더라고, 과학원 원장으로서 행정사업도 하고 저술활동도 하려면 집이 비좁을수 있으니까도 넓고 칸수도 많은 집으로 바꾸어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백남운선생은 다음날로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후 선생이 일흔번째 생일을 맞을 때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도 또다시 진귀한 수예품과 여러가지 장수식품들도 보내주시었고 년로한 그의 얼굴에 병색이 들세라 몸소 치료대책도 세워주시었으며 바쁜 시간을 내시어 병문안도 하여주시었다.

정령 아버지수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정은 그에게 있어서 온갖 로쇠와 그 어떤 병마도 이겨낼수 있게 하는 사랑의 불사약이고 생명력이었다.

하여 선생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아로새겨질 위인의 혁명정신을 집대성한 도서 《김일성동지의



## 동포의 정우가는 애국애족의 집단이라

### 애국애족을 동을 보다 넓은 단계어로

총련에서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여러 지부와 분회들이 결성, 재건되고있다.

얼마전 현재 각 단체 책임자들과 동포들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련 후쿠이현본부 중앙지부 재건모임이 총련본부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참가자들은 지부재건을 위한 준비기간을 돌이켜보면서 중앙지부를 동포들의 정이 오가며 굳게 뭉쳐 전진하는 애국애족집단, 상부상조의 미풍이 차넘치고 단합된 따뜻한 동포동네,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 거점으로 꾸려나갈것을

### 동포의 정우가는 애국애족의 집단이라

결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총련오사카부의 한 분회결성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선대들의 뜻을 이어 넓은 세대가 분발하여

### 동포의 정우가는 애국애족의 집단이라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요구에 맞게 앞으로 사업에 더욱 분발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안고

해마다 전 기관적, 전 동포적으로 불리는 총련의 《사랑의 모금운동》이 일별각지에서 진행되고있다.

《사랑의 모금운동》은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안고 이뤄져 사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봉사활동이다. 장기화되는 《COVID-19》사태로 동포들의 생활과 경제형편

###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안고

이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속에서 동포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올해 《사랑의 모금운동》은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요구에 맞게 모금사업을 총련지부, 분회단위에서 힘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COVID-19》감염증으로 지원이 필요한 동포들과 료양자, 환자들의 감염예방형편을

###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안고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활동도 벌어지게 된다. 본사기자

### 오그랑수만 쓴다

최근 공화국이 내놓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대선결과제를 회피하며 여론을 오도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가 겨레의 조소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다 아나바와 같이 공화국이 친명한 중대선결조건으로 말하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초

### 오그랑수만 쓴다

야 한다. 그러나 이후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라 전혀 없다. 결국 이것은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와 적대적전전, 적대시정 책을 버리지 않고 공화국과 끝까지

### 오그랑수만 쓴다

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에 얽힌 중한 해악을 끼치는 행태를 강행하면서도 외부에 나가서는 변변스럽게 《평화》를 떠들며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고있는것이다.

### 오그랑수만 쓴다

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초

### 오그랑수만 쓴다

요이다. 그러므로 하여 공화국이 내놓은 중대선결조건은 북과 남, 해외의 일치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오그랑수만 쓴다

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초

만일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공화국이 제시한 중대선결과제를 심층히 받아들여

지 대결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놓고있고 공화국을 자극하고 때때로 벌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이 끊이지 않고있다. 문제

본사기자 박철남



# 시론 《평화》의 외피속에 버려지는 대결의 칼

남조선당국이 넘볼처럼 위어난 《평화》타령의 대결적본색이 날이 갈수록 적라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도 련이 벌어지는 동족대결의 전쟁연습이 그에 대한 실증이다. 지난 10월말부터 남조선에서는 대규모의 작전사령부급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정부》급훈련인 《을지태극》과 련동되어 벌어지더니 11월에 들어서서는 외세와 야합한 련합공중훈련도 공공연히 강행되었다. 공화국의 주요시설들에 대한 공중기습타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목적밑에 수백대의 군용기들을 동원하여 벌어지던 대규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신해 이번의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에는 2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이런 무분별한 행동들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평화》를 운운하지만 동족을 해치려는 칼을 거두지 않고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본토의 무력은 참가지 않는다. 훈련규모를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중언부언하지만 명칭이 바뀐다고 침략적성격이 달라질 수 없으며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결본성이 약화되거나 가리워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동족에 대한 적대적사와 공격기도가 뚜렷한 전쟁연습들이 평화와 너무도 거리가 멀고 그것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위협으로 된다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바이다. 남조선당국이 전쟁연습을 벌일 때마다 《내륙적》, 《방어적》이라는 수식어를 곁들였지만 그러한 꾀변은 저들이 해마다 동족대결의 불장난을 계속해왔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했거나 다름없다. 그 무은 《한미동맹》유지와 련합방위태세강화의 명목으로 울헤에 들어와

9월까지만도 총 146차의 련합야외기동 훈련들을 실시하고 군비증가물도 보수 《정권》때보다 현저히 높은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의 머리에 동족대결의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부언하건대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외세와의 대결모의,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이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 동족과의 화해를 운운하는것은 막의 씨앗을 심고 덕의 열매를 바라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이라고 하면서도 《주적》으로 대하는 편견적인 시각과 이중적인 태도, 《평화》의 외피속에 동족대결의 칼을 가는 적대적관점과 정책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계속 멀어지지만 할것이다. 외세와 야합한 동족대결, 전쟁대결을 언제까지 지속시키려는가. 정 필

# 해소될수 없는 사회적악성병폐

남조선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임시고용노동자를 의미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적은데다 각종 차별과 학대, 항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잠재적인 실업자나 다름없으며 남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커다란 사회적문제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날로 장기화되고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악화되는 경제위기에 자급난,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기업체들이 로임이 낮고 해고하기도 쉬운 비정규직을 늘이는데 경쟁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통계청이 발표한에 의하면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근로자는 806만 6000여명으로서 지난8월보다 64만명이나 늘었으며 이것은 2016년 8월보다는 159만여명이나 더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비정규직근로자가 800만명을 넘어 임금근로자의 40%를 차지하고 그중 대졸이상 비정규직근로자가 280만명을 넘은것은 판례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20대청년들이 비정규직근로자로 많이 전락되어 커다란 사회적문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대 임금근로자 353만 7000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무려 141만 4000여명으로서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20대 비정규직근로자가 지난 한해동안에 만 13만여명, 최근 5년동안 30만여명이나 더 늘어나고 2016년에 비해 5.5%나 증가한것으로 된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로 하여 정규직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사회적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임기내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요란하게 떠들던 현 《정부》의 성적표가 매우 초라하다. 이것은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실패해왔다는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비난하였다. 근로대중을 자본의 노예, 말하는 로동도로 여기는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는 영원히 해소될수 없는 사회적악성병폐로 만연되고 있다. 본사기자 안권 일

# 높아가는 정치불신, 늘어나는 무당층 - 남조선언론, 전문가들 비평 -

남조선언론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혐오감과 불신이 고조되고있는데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현재 여야당의 후보들중 누구도 민심의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대세론》은 고사하고 《비호감도》가 60%이상으로 지지률의 2배에 달하고있으며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는 등 지난 시기의 선거흐름과는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 나타나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남조선의 정치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현재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후보들이 《비호감》 1, 2위를 다투는 것은 류례가 없는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감이 없다는것을 실증하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피할수 없는 《력대급 비호감선거》라고 비평하였다. 남조선의 《뉴스1》은 《다음기 대선》(비호감율리프) 앙상으로 전개되고있다.고 전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무당층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상정황까지 관측되면서 레전 대선에서 투표율 급락사태가 초래될수 있다.》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힘》 홍준표, 윤석열대선후보의 비호감도가 각각 59%, 62%에 달했다. 윤석열후보는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두배 넘어선 수치다. 선거일이 가까와올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이 특정후보에 쏠리던 과거 대선과 달리 거꾸로 비호감이 늘어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현지전문가들은 《정치량국화, 상대진영 혐오분위기, 후보들의 도덕성문제》 등으로 꼽으며 《이번 대선》이 류례없는 비호감선거가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외신들까지도 남조선에서 이번 《대선》을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말이 나오고있는데 대해 전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치권은 분열될것이라고 야유하였다. 이른바 정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사회와 국민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과 권력욕에만 미쳐 돌아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강영진



남조선에서 지난 5일 《대선》후보출마를 위한 《국민의 힘》의 경선이 막을 내렸다. 모라는 권력이라는 먹이감을 앞에 놓고 저돌이 으르렁거리는 니진투구의 싸움이 일관락을 지켰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 분수야당의 추악한 리면을 파헤쳐본다

## 《막말배설당》에 대한 민심의 평가

《대선》으로 향한 《국민의 힘》의 경선과정은 서로가 짓밟고 서로에게 짓밟히우는, 마치 동물들의 치열한 생존경쟁과 흡사했다. 인물난에 허덕이던 《국민의 힘》안에 별의별 권력야심가들이 다 몰려들어 저저마다 출마를 선언했으니 그중에는 당을 틀라락한 자도 있었고 귀퉁이까지 날아든 귀퉁이와 같은 어중이떠중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후보룡》이 들끓고 있는 하지만 정작 쓸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으니 무지에서 벗어날고르기보다 더 힘들었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말그대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 했다. 처음부터 《굴러온 돌》과 《배긴 돌》, 《돌고래》와 《멸치》, 《고등어》로 《격》이 나눠져 후보들사이의 대립이 인신

공격과 막말비난전으로 그 도수가 높아지면서 남조선민심이 평한것처럼 《점점 가경》(점점 훌륭한 경지에 이르는것)으로 치달았다. 남조선언론들도 《싸움군을 뽑는 선거》, 《후보들사이의 니진투구》이라며 《국민의 힘》의 경선을 련일 대서특필하는 속에 불과 며칠전까지도 후보들사이에는 누가 막말을 더 잘하는가 뽐내기라도 하듯 치열한 비난전이 이어졌다. 홍준표측은 《윤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이 설치한 의혹의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달고있는 후보》라고 폭탄공격하다 못해 윤석열이 《국민의 힘》소속 《국회》의원들을 《영입》하여 세력을 확대하고있는데 대해 《홀러 다 정치인들 모아 골목대장노릇하는것도 며칠 남지 않았다. 파리에 배는 썩은 곳에만 몰려든다.》

10월 26일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자가 자기 줄개의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한 날이다. 열흘전인 바로 그날에 《유신》독재자와 전두환의 뒤를 이은 《6공》의 군부독재자가 병으로 사망했다. 우연한 일처럼 보기에 는 너무도 신동하여 력사를 다시 되새겨보게 해준다. 국악무도한 파초춤에 매달리다가 력사의 심판을 받고 황천객이 된 《유신》독재자처럼 《6공》의 군부독재자도 5.18광주민중항쟁의 주범, 민주시민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 없는 천황자라고 규탄하면서 그 린자에게 《국가장》을 치러주는것은 민주렬사들에 대한 모욕,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단죄해나섰던 것이다. 리은혁

## 10월 26일

10월 26일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자가 자기 줄개의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한 날이다. 열흘전인 바로 그날에 《유신》독재자와 전두환의 뒤를 이은 《6공》의 군부독재자가 병으로 사망했다. 우연한 일처럼 보기에 는 너무도 신동하여 력사를 다시 되새겨보게 해준다. 국악무도한 파초춤에 매달리다가 력사의 심판을 받고 황천객이 된 《유신》독재자처럼 《6공》의 군부독재자도 5.18광주민중항쟁의 주범, 민주시민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 없는 천황자라고 규탄하면서 그 린자에게 《국가장》을 치러주는것은 민주렬사들에 대한 모욕,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단죄해나섰던 것이다. 리은혁



## 독기서린 광고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격투속에서도 《국민의 힘》 예비후보들이 한결같이 한 소리가 있다. 《정권교체》하면 맨 처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여당 《대선》후보를 감옥에 넣겠다는것이. 홍준표는 《리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구속된다.》고 공개발언했고 원희룡은 《림에서 아니면 링밖에서 리재명을 반드시 구치소에 보낼것》이라고 했다. 윤석열과 류승민도 대장동계발 특혜의혹을 곁들며 같은 소리를 하였다.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리재명은 감옥에 간다고. 경쟁상대자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파보면 자기들의 정치적적수인 진보세력을 모두 감옥에 넣겠다는 홍심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윤석열은 자기가 권력을 쥐면 《법치만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고야했는데 남조선민심은 그가 《검찰공화국》을 확대하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광주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적신 살인악당 전두환이 정치를 잘라냈다고 뇌가리는 윤석열이나 《유신》독재자를 《계승》하겠다고 떠드는 이여의 인물들이 정치적적수를 감옥에 보내는것쯤은 능사로 할것이지 분명치 않은가. 리재명을 감옥에 보내는것과 함께 그들이 하겠다는것이 또 하나 있다. 최은정

## 《또 철수?》

남조선에서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가 다음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고 한다. 출마선언문이라는데서 그는 《대선》이 다가와도 《나쁜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어 격정이라면서 자기가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실현하겠다고 기업을 뽐냈다는 것이다. 선거때마다 여러번 출마하여 간보지만 하다 철수하곤 하여 《간철수》라고 하더니 그의 《선거출마법》이 또 도전 모양이다. 이번에도 여야당사이의 치열한 싸움으로 정치적관심층이 늘어나자 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대선》경쟁의 막판에 영향력을 행사해보려는 타산으로 출마했다는것이 현지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이다. 《정권교체》라는 명분으로 보수세력의 간을 보고, 《시대교체》라는 달콤한 말로 중도층의 간을 보다가 되면 좋고 안되면 또 철수하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국민의 힘》 것들이 《가치동맹》, 《단일

## 남조선대 학생 단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청년총궐기투쟁 선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30일 대학생 단체인 《진보대학생네트》가 서울에서 《불평등, 이번 생애 바꾸자! 청년총궐기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단체는 선거철을 맞으며 여야당들과 후보들이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앞을 다투어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열고있지만 선심성지원으로는 청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2030세대》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다. 청년실업은 역대 최대치인 20%를 웃돌고있다.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정신향제과로, 로동안정미흡으로



## 남조선대 학생 단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청년총궐기투쟁 선포

죽어가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단체는 사회구조를 바꾸는것이 청년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면서 청년문제는 청년들 스스로가 투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일자리확대와 주택해결, 《근로기준법》과 《증대채테크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앞을 다투어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열고있지만 선심성지원으로는 청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2030세대》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다. 청년실업은 역대 최대치인 20%를 웃돌고있다.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정신향제과로, 로동안정미흡으로





###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 명리학자 최영희

지난 2월 평양의 모란봉구역 민홍동에 살고있는 특유영예군인 한명일과 조선중앙통신사 보급원 변영청의 결혼식이 만사마귀의 축복속에 진행되었다.

영예군인과 일반인생을 같이하는 것을 웅대한 본심으로 여기는 이 땅의 청년들의 고결한 인생관을 다스림 보여준 변영청녀성의 아름다운 소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 \* 한명일이 퇴원한 이후에도 그를 간호하기 위해 찾아오는 변영청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몇달이 지나지 않아 어느 날이었다. 명일의 집안에 이른 영청의 귀환에 집안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일과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명일아, 영청이가 계속 오는 데... 이제 간호사를 바꾸자꾸나. 처녀가 기특하긴 하지만 남의 집 귀한 딸을 계속 고생시킬수 있지 않나?》

《아버지, 내게도 생각이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영청의 머리속에는 낮에 들은 그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다른 간호사가 오면 그는 명일동무를 잘 모르겠는데...)

명일에 대한 생각은 처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의 곁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잡았다.

그것은 명일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자기가 일생 그를 간호해야 한다는 마음속

결심을 스스로 내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조용히 울러나 그의 결심은 처음부터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첫 장벽은 그의 부모들이었다.

《특유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한다는게 환자면회하는 것과 같은줄 아니? 간호사님 때하군 달라.》

어머니의 이 말에 영청은 《어머님 제가 병원에 입원한 명일동무를 찾아갈 때 저의 심정을 리해해주지 않았나요?》 하고 간절히 말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는 《너를 지지한다.》는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자기의 심정을 명일의 부모들은 받아줄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영청은 그의 집으로 갔으나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그동안 수고왔는데만 우리 영청일 받아들이수 없구만.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면 우리 일생 피로움속에 살게 돼. 우리 아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딸을 끊어주게.》

명일을 위한 진정어린 호령이 울리는 순간 처녀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다. 그러나 영예군인을 위한 처녀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돌려줄수 없었다.

그것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그 누구에 대한 동정심에서 우리나라것이 아니기때문이였다.

하기에 그는 부모들에게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는 길에서 영원한 청춘으로 살라는 뜻

에서 부모님들이 저의 이름을 영청이라고 지어주지 않았나요. 조국을 위해 자기의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명일동무와 같은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잘 돌보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웅대한 본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길을 주저없이 가는것입니다.》

영청의 진정에 감동된 부모들과 명일은 끝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다.

영청이 특유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는 소식은 그가 일하는 조선중앙통신사는 물론 동과 구역에 알려졌다.

지난 2월 18일, 그들의 결혼식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 해주었다.

한명일은 격정을 누를길 없어 사회주의대가정을 활짝 꽃피워주는 데에 힘쓰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변영청녀성의 소행을 보고 받으시고 사랑의 선물 보내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민홍동의 특유영예군인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영청이 일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일군들, 모란봉구역 인민위원회 일군들, 메아리음향사의 일군들... 그칠새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속에는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변영청녀성이 발휘한 아름다운 소행, 바로 여기에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고상한 인간관계가 새 사회를 지배하고 서로 사심없이 도와주고 위해주는 미덕과 미풍이 국풍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비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춘경

# 개화발전하는 민족음악, 사멸되어가는 전통음악

## 《우리 민족음악이 제일》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우리 민족음악이 제일입니다.》

언제인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민족음악가가 한 말이다. 그때 그는 우리 민족음악의 우수성에 대해 손가락을 꼽아가며 말했다.

민족음악에서 기본은 민요라는 것, 한번 들으면 따라부르고싶은 흥동이 있고 부르거나 민중적구호와 자부심이 절로 솟는 《아리랑》, 《도라지》, 《양산도》와 같은 민요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다정다감한 우리 겨레의 민족적감정을 잘 나타내는 민족악기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서 가야금 연주까지 해보였다.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우수한 민족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민족악기의 우월성은 수십년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적인 배합관현악을 창조하신 후 온 세상에 힘있게 파지되었다. 당시 어느 한 나라 출판물은 조선예술단의 공연을 본 소감에 대해 서술하면서 민족악기를 떠나 사람들을 행복시키는 주체예술의 맑은 음색과 우아한 울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썼다.

유럽의 음악전문가들도 어디서 그런 맑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가, 악기소리도 좋고 모양도 보기 좋고 참 훌륭한 민족악기이다. 조선악기는 민족적이면서도 현대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잘 나타내고있다. 단소와 제배는 음색이 독특하다고 말하였다.

몇해전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찾은 외국인들은

가야금을 비롯한 민족악기들의 연주를 듣고나서 세계적으로 이런 음악은 조선에만 있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다만풍가》, 《세월이야 가보라지》와 같은 민요풍의 노래들과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는 특색있는 음악작품들,

새로운 연주형식들이 창조되어 주체음악발전의 기여하고 있다.

누구나 노래를 불러도 우리 민요를 즐겨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이다.

## 《우리 땅에서도 낯선 우리 음악》

공화국에서 우리 민족음악이 제일이라는 목소리가 울릴 때 한외교관이 한민족이 살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어떤 부름이 울리고있는가.

《우리 땅에서도 낯선 우리 음악》,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음악이 미국식음악과 서양문화가 혼란된 이색적인 음악으로 퇴색되고있는 현실을 반영한 말이다.

남조선에서 《K팝》(남조선대중음악)을 비롯하여 미

《유치원》 등 민족음악에 《자즈》나 《랩》, 《힙합》을 마구 뒤섞은 《퓨전국악》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있으며 고유한 민족문화와 장단을 잃어버리고 서양음악과 장단을 태두어둔채 조선옷도 양장도 아닌 해외명품 옷을 걸치고 나와 란잡한 막춤을 추고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에서는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을 가르치는 비중이 9:1인것으로 하여 청소년들속에서 양악기인 기타를 민족악기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통음악에 대한 개념까지도 사라지고있다고 한다.

\* \* 민족음악을 잃게 계승발전시키지않고있는 공화국과 민족음악을 찬사하는 남조선의 현실을 얼마나 대조적이거나 공화국이야말로 민족의 넋이 살아있고 민족전통의 빛을 뿌리는 진정한 조국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김새별



공화국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음악유산이 활짝 꽃피고있다.



퇴폐적인 서양음악이 판을 치는 현실을 개란한 남조선 언론

시대주의에 물젖어 퇴폐적인 서양음악이 판을 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음악이 갈수록 조락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을 한 언론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한해 대학에서 《국악》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은 약 400명. 그중에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학생은 10명 남짓. 이것이 바로 우리 《국악》의 현실이다. 지역축제나 음악단체가 많아졌다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다른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발버둥치고있다. 막고사는 문제보다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채울것인지 고

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보통 정서다. 사회적분위기도 한몫했다. 뿌리깊은 시대주의가 음악에서도 병폐가 됐다. 《국악》을 표면적으로만 계승하

우리 겨레의 정신적지주라고 할수 있는 민족음악이 양악에 밀려 쇠대바야하 하는 현실이 가슴아팠다. 그는 《좋은 민족악기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것은 시대주의가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S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남 아무개 교사는 음악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적음악을 가르치는 음악교육이 선행돼야 국악을 살릴수 있다.》면서 《양악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과정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 《국악》의 몰락 주도한 시대주의

《국악》의 미래를 걱정하는 음악인들은 격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적양식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국악》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선배음악인들과 《정부》의 뒤집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것

면서 가치하락을 자초했고 양악을 자주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국악》천시라는 풍조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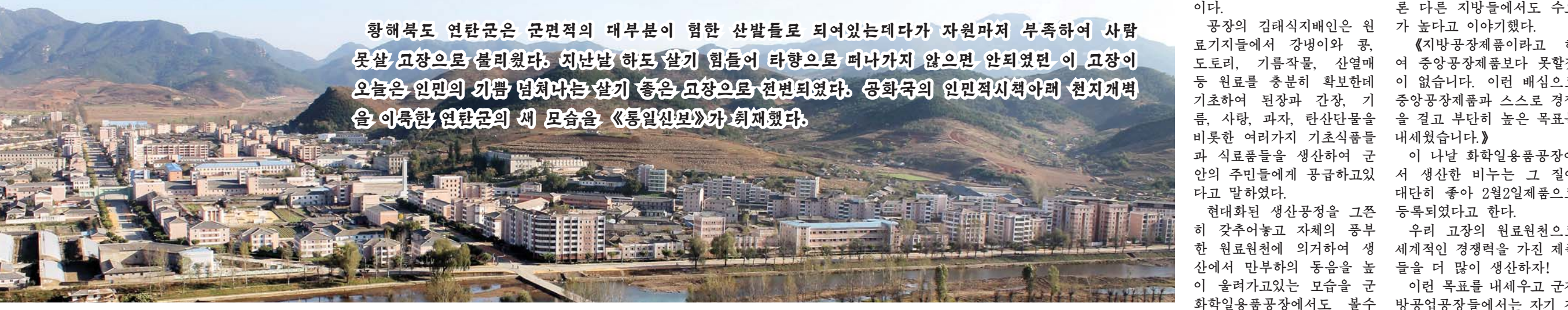
때문에 젊은 《국악》인들 중에는 서양악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국악》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일까지 벌어

데 음악적으로 깊이가 얕다는 지적이다.

K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한 김 아무개씨는 《국악》인의 길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유흥업에 뛰어들었다. 그의 불만은 바블구멍보다 작을 취업자리에 있지 않았다.

## 탐방기

# 어제날의 《돌모루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친 연탄군은 첫눈에도 정이 들었다. 번듯한 포장도로를 따라 걸으며 읍지구의 전경을 바라보느라니 이 고장 사람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해방전 화전민부락이었던 연탄군은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한 궁벽한 고장이었다고 한다.

이 고장에 태를 물었다는 장세조(86살)로인은 《이 고장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산뿐인데다가 척박하여 누구도 이 고장에 오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가기만 했다.》고 추억했다.

그 옛날 돌자랑밖에 할것이 없어 《돌모루군》이라고 불리웠다는 연탄군. 하지만 오늘은 흥하는 고장으로, 황해북도의

황해북도 연탄군은 군면적의 대부분이 험한 산밭들로 되어있는데다가 자원마저 부족하여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웠다. 지난날 하도 살기 힘들어 타향으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 고장이 오늘은 인민의 기쁨 넘쳐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변되었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아래 천지개혁을 이룩한 연탄군의 새 모습을 《통일신보》가 취재했다.

가지고오신 음식들을 양수기 운전공들에게 보내주시고 자신께서는 땀땀로 요기를 하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이곳에 깃들여있다.

연탄군에 새겨진 전설같은 사연들은 인민을 위해 험한 길을 걷고있으며 민부의 터전을 닦아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민헌신의 자욱을 길이 전하고있었다.

하기에 주재99(2010)년 5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이 고장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군을 더 잘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고, 그러하면 일군들이 많이 많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위민헌신의 자욱에 떠받들려 연탄군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도시사람들도 감탄하는 문

화후생 및 봉사시설들과 치료에방기관들, 산마다 풀마다 옥실지리는 양떼와 염소떼, 옛날흔적을 찾아볼수 없게 정리된 강하천들, 개진된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비누와 기초식품을 비롯한 제품들, 늘어나는 잣나무림, 단나무림, 들배나무림, 들쪽나무림과 더불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된 산림, 산골짜기마다에 즐비하게 솟아난 살림집들, 일매 지게 포장된 도로들,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민부하로 돌아가는 지방공업공장들... 연탄군사람들에게는 꿈이 많았다. 자기 사는 고장을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넉넉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려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러갈 아름다운 꿈을 안고 애국의 땅방울을 바쳐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잠재력을 발동하여 연탄군에는 식료공장, 화학공업공장, 종이공장, 직물공장, 버섯공장, 가구생산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군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특색있는 제품들을 생산하여

넉넉히 알려진 지방산업공장이 많다.

연탄군 읍에 위치하고있는 군식료공장은 현대화된 생산공정을 갖추고 갖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는 공장



# 단풍계절, 평양의 이채로운 풍경



사진: 문화기자 동창현, 김용석

11월의 절기에는 립동과 소설이 있다. 립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를 뜻하며 소설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르는 말이다. 이 절기들에 우리 선조들의 생활풍습에서 중요한 것은 김치담그기와 다음해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 것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김장은 반량식이라고 하면서 김치담그는 일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거기에 넣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은 지방마다 각이하였다. 김장철이면 통배추김치와 함께 동치미, 보쌈김치, 갓김치를 비롯하여 지방마다 맛과 향기가 독특한 여러 가지 김치를 담그었다. 김치는 여러 가정의 주부들이 모여 한집씩 돌아가면서

담그어주었는데 새로 담근 김치를 이웃들에게 먼저 맛보는 것을 도덕으로 여겼다. 다음해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 것도 우리 선조들 속에서 대대로 전해져오는 오랜 풍습이었다. 또한 선조들은 이 시기 문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을 손질하며 외양간을 고쳐짓는 등 겨울나이를 준비도 착실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풍습들에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간지런서도 근면한 우리 민족의 생활기풍이 반영되어 있다. 이 시기 진행한 민속놀이들은 율놀이와 바둑, 장기, 칠고놀이 등 유희 오락과 어린이들이 즐겨한 연피우기, 제기차기 등이었다. 올해의 립동은 11월 7일, 소설은 11월 22일이다. **본사기자**

개성시 북안동에 있는 옛 성문인 개성남대문은 1391년-1393년에 세우고 1899년에 보수하였다. 개성남대문은 화강석을 곱게 다듬어 쌓은 장방형정면의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축대우에는 적을 쫓아내게 성가퀴를 돌리고 거기에 여러가지 형태의 쏘는 구멍을 뚫어놓았다. 축대우에 세운 문루는 정

면 3칸(13.63m), 축면 2칸(7.96m)이다. 기둥은 돌기둥우에 나무기둥을 이어세웠다. 밀의 돌기

그러면서 안도리를 서까래까지 올리는 것을 안쪽의 장어를 겹으로 놓고 그가운데에 화반을 끼우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문루의 널마루는 가운데 한칸에만 깔고 내부는 전부 통천정으로 하여 집안

##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개성남대문

등은 높이 1m이며 그 네모를 죽이었다. 두공은 포식두공으로서 짧은 소허형제공에 첨차를 맞추어 안팎 3포로 짜올렸다. 문루의 널마루는 가운데 한칸에만 깔고 내부는 전부 통천정으로 하여 집안



## 새 소식을

### 《새 승리를 향하여》



평양출판사에서 소재자 《새 승리를 향하여》를 출판하여 내놓았다. 책자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견인하는 리정표가 제시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새

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의의를 가진 첫해 사업에서부터 뚜렷한 결실을 가져 오기 위한 실천강령이 명시된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지금 공화국인민은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써 세세년년 간직해 온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기어 실현하기 위한 결연불발의 애국투쟁을 과감히 벌려 나가고있다. 력사적인 당대회가 천명한 과업들이 관철되면 사회주의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

한 길로 이끌며 인민들에게 부럼없는 복락을 안겨줄수 있는 지름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공화국이 이룩하게 될 또 하나의 새 승리를 의미한다. 책자는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으며 시련속에서 착실히 련마하고 중대시커온 자강력이 있기에 공화국은 자기내세운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본사기자**

## 협박의 자욱을 탐간 지사들

애국문화활동가인 리준은 로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이 강화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반일애국운동에 나섰다. 그는 1904년 6월 일제의 토지략탈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었으며 그해 12월에 친일주주단체인 《일진회》에 대항하여 공진회를 조직하고 친일주주들과 봉건통치배들의 애국배척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다. 그후 공진회가 해산되자 그는 현정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1906년에 한복흥화회를 조직하고 청소년들과 대중속에 애국심과 교육열의를 고취하였다. 리준은 1907년 6월 네메를란드의 헤그(스호라벤하헤)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그곳에 가서 국제사회여론을 불러일으켜 일제의 조선강점에 타격을 줄 결심을 하였다. 리준은 전 의정부 참관 리상설, 전 로씨야주재 공사관 서기 리위종과 함께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헤그에 가서 정식 조선대표로 회의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모

## 리준



략과 음모속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의장은 조선대표의 참가를 거부하였다. 정식대표로 참가할수 없게 된 리준일행은 국제기자협회 의 연단과 그곳에 가서 여러 출판물들을 통하여 일제가 저지른 조선침략의 범죄행위를 폭로단죄하였다. 리준은 이 회의에 기대를 가졌던것이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였음을 깨닫고, 풍속에서 칼을 꺼내어 배를 갈라 자결하는것으로써 조선은 완전자주독립국가라는것을 항거의 정신으로 보여주었다. 리준의 이러한 활동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제국주의자들에게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 **본사기자**

## 사화

### 《쇠도리깨다!》 (6)

글 리빈, 그림 김윤일

필드는 애써 웃음을 반쯤 일으키고 그들에게 정중히 사의를 표한 다음 노술이에게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노술이,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도리깨병창기를 완성해야 해!」 이런 막중한 일을 어렵다 구 물리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지키겠나. 우리모두의 고향이 있구 부모처자가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나. 한번 부딪혔다가 실패는 했지만 그덕에 경험을 얻었으니 우리 잘 고쳐벌췌 수 있네. 방안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상한 몸이지만 그렇듯 심심과 기백이 차넘치는 필드의 말을 듣고 더더욱 분발할것을 다짐하였다. 필드와 그밖에 여럿의 요청에 따라 노술이가 먼저 도리깨를 개조하기 위한 자기의 생각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한창 열이 올라 서로가 론쟁을 할 때 방문이 바시시 열리더니 노술이의 안내 무던이가 조심조심 문턱을 넘어 들어섰다. 그는 방금 걸은 막걸리 한동이와 퍼뚫한 애호박을 자름자름 썰어넣고 변철에 지저번 햇밀지진 한채반을 가져왔다. 저녁으로 보리밥을 먹기는 하였으나 인차 배가 끼지는 바람에 모두들 속이

출출하던차라 사람들은 여간만 좋아하지 않았다. 현로인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집 새끼가 저 궁냥 좀 보라니. 열두꼭치마가 아닌가, 열두꼭! 이제 아들을 낳겠네! 틀림없이 장수갑일새, 나라 지킬 장수. 예행!」 시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던이는 무르익은 애두처럼 새빨갳게 물든 얼굴을 팔소매로 열린 가리우며 반쯤 돌아앉았다. 애끓는 녀인이 응색해하구나말거나 아랑곳없이 사나이들은 로인의 환복에 맞장구를 쳤다. 「머느리는 시아버지 머느리라더니 정말 아버님이 머느리자랑을 하시는군요. 아닌게 아니라 자랑할만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간에 화목하고 살림살이 알뜰하고 또 오늘은 열두꼭치마고 어디 빠지는게 있나요.」 「난 정말 노술이 안색을 볼 때마다 현세집이 부러워서 몸살을 앓을 지경이예요. 정말 얼마나 복 많은 집이예요!」 「옛사람들도 일제기 가르치지 않았나요. 가빈사현치요. 국난모양신이라. 집안이 궁궁할 땐 어진 안내 생각이 간절하고 나라가 어려울 땐 어진 신화가 그리운 법이라고 말입니다. 집살림이 어

려움을 당하고 변란에 말려든 이때 그 때 머느리아말루 옛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대답할만한 재목이지요. 나의 이 말엔 조금도 어폐가 없습니다. 시아버지를 따라 왜놈을 치러 도리깨를 들고 나섰던 그 기쁨이던 재목이 되기도 남지요!」 「다들 지망한 말이요.」 「저기 낮빛이 붉어진 노술이가 제발 그만두라고 사정을 해서야 칭찬은 그쳤다. 새꿈달달하고도 시원한 막걸리를 한사발씩 마시고 갑철맛있는 햇밀애호박전을 안주로 몇접씩 집고나니 기분이 등뜬 사나이들은 론의에 더욱 열을 올렸다. 현로인을 비롯하여 늙은이들도 드문드문 한마디씩 기여들곤 하였다. 오래동안의 갑론을박끝에 작은 부분품들인 폭지와 도리깨야들은 무쇠로 만들고 장부들은 나무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들은 장부까지도 어떻게든 쇠로 견뎌내 만들어보려고 진지하게 토의를 해보았으나 끝내 아무런 결말도 보지 못하였다. 장부는 도리깨에서 심본의 칠정도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것조차 무쇠로 만들면 바위도 부서뜨리겠지만 아무리 가볍게 만든다 해도 너무 무거워 그 어떤 누

구든지 다루어낼 재주가 도무지 없거니와 거기에 드는 밀쇠 또한 대어낼 원천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이렇듯 불가피한 사정에 막혀 노술이네들은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 옛적부터 써오던 노가자나 무장부대신 황해도당에서 가장 질긴 물푸레나무로 바꾸고 터져나가기 잘하는 머리부분에는 무쇠도리깨를 씌우며

이렇게 만든 도리깨는 본래의것보다 훨씬 무거운것이므로 특별히 힘줄을 쓰는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맹훈련을 시키도록 한다. 쇠도리깨군은 가정을 떠나 엄격한 집단생활속에서 훈련을 할것인바 이들에게는 온 마을의 중흥으로 하루 세기의 물론 동참과 밤참을 생의껏 보창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최대의 힘을 내도록 할것이다. ...



두가닥도리깨야들만은 전부 쇠로 만든다. 그러되 이제껏 써오던 물푸레나무아들처럼 기다란 쇠막대는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는만큼 호미나 낫가락을 붙여 흠뻑 달군 다음 때려 늘어서서 그 량갈에 고리로 몇개를 서로 련결한다. 말하자면 종전처럼 다란 막대기가 아니라 고리로 련결된 마디쇠도리깨야들이 된다. 마디의 토막수는 썪보아가면 늘이거나 줄이어서 조절한다. 폭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쇠로 맞춘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김만수의병대장은 만족스럽게 승인하면서 훈련을 자신이 직접 지휘하겠다고까지 하였다. 현로인은 마누라와 머느리를 데리고 마당 한켠구석에 대장간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김만수의병대장이 그에게 메질군 셋과 그밖에 시중군으로 두사람을 붙여주었다. 한골반바닥과 여러 이웃부락들에서 어기로 호미와 낫가락을 가져왔다.